

고왕 대조영[大祚榮]

고구려의 장수, 발해를 세우다

미상 ~ 719년(고왕 22)



대조영 표준영정

/ 전통문화포털(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) /

1 개요

고왕(高王) 대조영(大祚榮)은 발해의 첫 임금으로 발해를 세우고 698년부터 719년까지 재위하였다.

2 대조영의 출자(出自)에 대한 기록들

발해에 관한 기록은 중국사서의 열전에 적혀 있는 몇 장이 전부이고, 대조영에 관한 기록은 한 줄에 불과하다. 그나마 적혀 있는 대조영의 출신에 관한 내용도 사서마다 달라서 혼란스럽다. 각 사서에 기록된 대조영에 관한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경향성을 보인다.

『구당서(舊唐書)』에서는 “발해말갈의 대조영은 원래 고구려의 별종이다”라고 [관련사료](#) 하였고, 『신당서(新唐書)』에서도 “발해는 원래 속말갈로서 고구려에 붙은 자로 성은 대씨이다”라고 [관련사료](#) 하였다. 『구당서』와 『신당서』에서는 대조영의 출신에 대하여 원래는 속말갈이고, 고구려의 별종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말갈적 요소와 고구려적 요소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.

반면 『삼국유사(三國遺事)』에서는 한국 측 사서인 『삼국사(三國史)』와 『신라고기(新羅古記)』를 인용하여 고구려의 옛 장군 조영의 성은 대씨(大氏)인데 고구려의 유민을 모아 나라를 세워 발해라고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. [관련사료](#) 대조영의 종족적 출신에 대해서는 정확히 언급하지 않은 채 고구려의 장군 출신이라고 하고, 발해를 세운 주체가 고구려의 유민이었음을 밝히고 있다. 즉 현재 전하지는 않지만 『삼국사』와 『신라고기』는 발해에 대하여 고구려적 요소만을 서술하고 있다. 『제왕운기(帝王韻紀)』에서도 대조영을 고구려의 옛 장수라고만 언급하였고, 『고려사(高麗史)』와 [관련사료](#) 『고려사절요(高麗史節要)』에서도 [관련사료](#) 발해는 속말갈인데 “고구려인 대조영(高句麗人 大祚榮)”이 발해를 세웠다고 하여 대조영을 고구려인으로 규정하고 고구려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.

반면 말갈적 요소만을 언급한 기록도 확인되는데 최치원은 대조영이 원래 속말갈 출신이라고 [관련사료](#) 하였고, 『삼국유사』에서 중국의 『통전(通典)』을 인용한 내용에서는 “발해가 원래 속말갈로 그 추장인 대조영에 이르러 나라를 세웠다”고 [관련사료](#) 하여 속말갈이라고 칭하고 있다.